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695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8년 8월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특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reer Selection and Career Satisfaction after Archer's retirement

2018년 8월 24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특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철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체육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 특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특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윤 오 섭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경 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철 주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C. 연구 문제 ····· 4

D. 용어의 정의 ····· 5

E. 연구의 제한점 ····· 6

Ⅱ. 이론적 배경 ····· 7

A. 은퇴 ····· 7

B. 진로선택 ····· 14

C. 진로만족 ····· 20

Ⅲ. 연구방법 ····· 21

A. 연구대상 ····· 21

B. 연구모형 ····· 25

C. 연구절차 ····· 25

D. 조사도구 ····· 26

E. 자료처리 ····· 35

Ⅳ. 연구결과 ····· 37

A. 상관관계 분석 ····· 3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진로 유형이 진로선택노력에 미치는 영향 ····· 40
C. 진로 유형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43
D. 진로준비행동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44
E. 진로선택노력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45

Ⅴ. 결론 및 제언 ····· 47
A. 결론 ····· 47
B. 제언 ····· 49

참고문헌
부록 : 설문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은퇴 관련된 선행 연구들 ····· 3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
[표 3] 연구절차 ····· 26
[표 4] 설문지 구성 ····· 28
[표 5] 진로유형 하위요인 진로의사결정유형 탐색적 요인분석 ····· 30
[표 6] 진로유형 하위요인 진로결정태도 탐색적 요인분석 ····· 30
[표 7] 진로준비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 31
[표 8] 진로선택노력 탐색적 요인분석 ····· 32
[표 9] 진로만족 탐색적 요인분석 ····· 33
[표 10] 신뢰도 계수 ····· 34
[표 11] 진로선택노력, 진로유형,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 상관분석 결과 ····· 39
[표 12]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탐색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1
[표 13]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상담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2
[표 14]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준비노력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3
[표 15] 진로유형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4
[표 16]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5
[표 17] 진로선택노력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 4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선수 생활 은퇴 개념 모형 ····· 10
[그림 2] 연구 모형도 ····· 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Career Selection and Career Satisfaction after Archer's retirement

Teuk Young Lee
Advisor: Chul Ju Kim,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rchery athletes' career choice and career satisfaction after retirement,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type, career choice, and career preparation on career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ampled by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mong 50 unemployed athletes who were retired from 2010 to 2017.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the type of career path for career choice of retired archery athletes on career selection effort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career type on career search, a sub-factor of career selection effort, showed that career decision attitude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which are sub-factors of career type after retiremen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econd, the effects of career type on career counseling, which is a sub-factor of career selection effort, is that career decision attitude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which are sub-factors of career type after retire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counseling appear. The effect of career type on career preparation, sub - factor, career decision type, which is a sub - factor of career type after retire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ut not on career decision attitude.

Third, the effects of career types on career satisfaction of retired archery athletes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career type on caree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satisfaction, which is a sub-factor of career type after retirement. However, career decision attitude did not affect career satisfaction.

Fourth,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career satisfaction of retired archery athletes is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retirees' various behaviors to prepare for the career necessary for career transition after retirement did not affect career satisfaction.

Fin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ection for career choice of retired archery athletes on career satisfaction are as follows. The effect of career selection effort on career satisfaction showed that career - seeking activities, career counseling activities, career preparation efforts, which are career selection efforts after retirement, did not affect career satisfac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오랜 시간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선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상과 경기력의 한계, 연령, 건강상태, 심리상태, 스포츠의 특성, 가정문제, 결혼 그리고 내외적인 환경 요인들로 인해 은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곤 한다(유덕수, 2007). 일반인의 은퇴와 운동선수의 은퇴는 모두 사회 지위와 수입 감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새로운 역할로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Hill & Lowe, 1974).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학창시절 정규교육 대신 운동에만 전념해 왔으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그래서 육체적이 아닌 지적인 노력을 요하는 직업 세계에서 은퇴선수들은 자연히 밀려나게 되어 제2의 생활이 시작부터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김옥천, 임수원, 1999)고 했고 어린 시기부터 스포츠에 전념해야 하고, 스포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면서 자아 정체성도 스포츠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 은퇴를 맞이하는 전환의 시기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 새로운 직업에서의 부적응, 가정생활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홍승후, 2001)고 했다. 더욱이 운동 선수들의 은퇴 후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현상적으로 문제화 되어가는 것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운동선수들의 은퇴에 관한 이론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구분한다. 운동선수의 선수 생활 종결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Coakley, 1983; Greendorfer & Blinde, 1985)과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운동선수들은 은퇴하고 충격, 분노, 좌절, 지위의 상실, 정체감의 위기, 음주, 약물의 중독 등을 겪게 되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퇴가 병적이며, 스트레스가 된다는 입장으로 운동선수에게 은퇴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Ogilvie, 1987).

운동선수들의 제일 큰 고민은 은퇴 이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중·후반 선수들 또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준비를 할 정도로 전성기는 아주 짧다. 부상과 불의의 사고와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가족사 등으로 선수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은퇴한 선수들의 구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 정착에도 어려움이 많아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대한민국의 운동선수들은 초·중·고 시절에 교과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기초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다. 엘리트 선수들은 은퇴 이후 진로를 변경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도 자료를 보면 유명한 스타 선수들의 은퇴 후 방황이나 일반인들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은퇴 이후에 주변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관된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은퇴 프로그램은'부익부 빈익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현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화려한 생활을 했던 선수 또는 스타급으로 활동했던 선수들은 은퇴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다양한 보상(연금, 병역면제 등)을 받거나 구직 활동에도 큰 혜택을 받지만, 부상으로 고생하거나 실력이 좋지 않았던 선수들은 은퇴 이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인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다.

Durso(1971)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은 재정에 대한 조언자가 있어 은퇴 후를 위한 현명한 투자에 도움을 주고, 선수들도 그들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여 운동 이후에 갖게 될 직업을 위해 비시즌에 새로운 직업에 적응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정휘성, 2012).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직업 문제와 적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프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수들의 직업은 코치 및 감독, 교사, 심판, 회사원, 개인사업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한다(서진교, 1997).

홍승후(2001, 2005)는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관한 연구는 프로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결혼 유·무와 은퇴 원인에 따라 은퇴에 대한 준비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프로로 활동하던 선수들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던 운동선수들에 비해 운동과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확률이 높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의 은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은퇴 관련된 선행 연구들

저자	내용
남행웅·서진교(1998)	프로선수들의 여가 스포츠 활동과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충식·공창빈·최영섭(2005) 윤익선·윤종대(1999)	선수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동하는 선수들에 관한 연구
서진교(1996)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김원식(2013)	축구 2군 선수의 사회적응과정과 재사회화
조상현(2011)	농구선수들의 은퇴와 재사회화
차종호(2008)	펜싱선수들의 은퇴 관한 연구
명왕성(2014)	K리그 선수들의 은퇴에 대한 연구
구민정(2008)	농구선수들의 은퇴에 관한 연구
정철규(2014)	유도선수들의 은퇴에 대한 연구
박광호(2012)	중도 은퇴한 야구선수들에 대한 연구
홍승후(2001)	프로선수의 은퇴 태도에 관한 연구

위와 같이 많은 프로선수의 은퇴에 관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궁선수들의 은퇴에 관한 연구는 전무후무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본 연구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원인과 진로선택과 진로 만족도를 살펴보고 은퇴 이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진로지원 체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B. 연구의 목적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와 선택에 대한 실질적이며 양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은퇴 이후 선택한 진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양궁선수들이 은퇴 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진로지원 체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 마련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C. 연구 문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양궁선수들이 인식하는 은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양궁선수들이 희망하는 은퇴 후 진로 유형은 무엇인가?
셋째, 양궁선수들이 인식하는 은퇴 이후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넷째, 양궁선수들이 은퇴 후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만족하는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D. 용어의 정의

1. 은퇴

은퇴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듦에 의해 중년에서 노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어나며 주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그만두어야 하는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라 말할 수 있다(Kimmel, 1974).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은퇴는 일반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은퇴(55세 ~ 65세)에 비해 훨씬 이른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일반사회의 비슷한 연령 집단이 대체로 본인의 직업에서 확고히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기에 운동선수들은 은퇴를 하게 된다(Macpherson, 1978 & Washington, 1981).

2. 진로선택

진로선택은 흥미나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등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이건남 · 정철영, 2009).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수 많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진로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하여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직업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강정은, 2008). 진로준비행동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아닌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진행하며 행동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4. 진로 만족

진로 만족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으로 직업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직업만족도와는 구분하며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한다(Lounsburt et al., 2003).

E.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 만족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있어 연구 대상, 측정 도구, 표집 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양궁 선수로 한정하였기에 다른 스포츠 은퇴선수들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특정 기간에 은퇴한 선수들만 선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정된 배경 변인들 이외의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 보고식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응답한 응답자들은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무성의한 응답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A. 은퇴

1. 은퇴의 개념

은퇴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시기이다. 은퇴는 나이와 연관된 것으로 60세 ~ 65세 정도에 은퇴 시점으로 나타나지만,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일반인과 달리 대체적으로 20대 후반 ~ 30대 중반 사이에 진행되어진다. 실제 양궁선수들의 은퇴시기를 살펴보면 여자 선수들은 대개 20대 중반-30대 초반 사이, 남자 선수들은 20대 중후반-30대 후반 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은퇴는 주요업무에서 물러나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비경제 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 활동에 참여하다가 근로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인생 주기의 후반기에 맞닿게 되며,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역할의 단절이다(Kimmel,1974). 즉,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의 은퇴의 개념은 경제활동과 인구구조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은퇴의 개념은 다변화되고 있다(강은나, 2013). 은퇴의 개념을 결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자신이 은퇴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Parnes& Nestel,1981), 둘째, 경제활동 참가 여부에 따라 은퇴를 정의한다(Gunderson & Riddell, 1995). 셋째,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이 일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축소되는 시점을 은퇴로 정의한다(Burtless& Robert,1994). 넷째, 은퇴 이후에 직업 활동을 계속 수행하게 될지라도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을 기준으로 은퇴를 정의한다(Barfield, & Morhan, 1976). 다섯째, 연금 수준에 따라 은퇴를 정의할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떠한 사람이 공적연금 혹은 기업연금을 최초로 수금한 시점 이후를 은퇴로 규정하게 된다(Atchley,1976). 즉, 과거에는 특정 연령이 되면 다시 경제활동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 사건으로 은퇴가 간주되었다면, 현재의 은퇴 개념은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한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의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 중 취업과 비취업을 경험하기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문정, 2015).

그러므로 은퇴에 관한 해석은 개개인의 환경과 사회적 지위가 은퇴 후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퇴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시기의 관점의 은퇴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 후 자의 또는 타의적으로 현 직업에서 물러나는 은퇴로 일반적인 노인학 관점의 은퇴 의미가 아니다.

2. 스포츠에서의 은퇴 개념

스포츠에서 은퇴란 스포츠로부터 진로 및 경력전환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으며 스포츠에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고 은퇴를 맞이하였는지 선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은퇴이론, 활동이론, 연속성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에 따르면 은퇴는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체계로부터 분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한 철회 또는 이탈을 맞이한다고 본다(Cumming& Henry,1961). 그러나 스포츠에서의 은퇴는 선수들이 은퇴하여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은퇴이론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둘째,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선수 개인이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비슷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욕구나 심리는 은퇴 전에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간주하며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활동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회참여를 유지한다고 본다. 이는 운동선수들이 은퇴로 인하여 전체적인 활동수준은 감소하지만, 은퇴 전의 경험들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Havighurst& Albrecht,1953). 셋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tchley(1980)의 연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은 은퇴이론과 활동이론의 대안적인 이론이라고 보며, 개인의 성향과 전 생애를 통한 성장발달과 연속성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은퇴 전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양희연, 2016). 이는 운동선수들에게 은퇴는 단지 상실의 시기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가졌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시간과 에너지가 역할 유지를 하는데 재분배된다는 것이다(전이경, 2003).

이와 같이 선수들은 특정 단계에 이르면 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는 즉 비자발적인 은퇴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스포츠에서의 은퇴는 정상적인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대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며, 또래가 일반사회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시기인 시점에 은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화와 같은 은퇴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직업으로 변화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개념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양희연, 2016 ; 재인용).

3. 진로 변화로서의 은퇴

사망론과 사회적 노인론 모두 연구자들이 은퇴를 단독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Blinde & Greendorfer, 1985).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은퇴를 인생에서의 발전을 포함하는 과정, 혹은 전환으로 특징지었다(Stambulova, 2001).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운동선수들의 불안 요소들을 고려하고 세부적인 진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로 변화 유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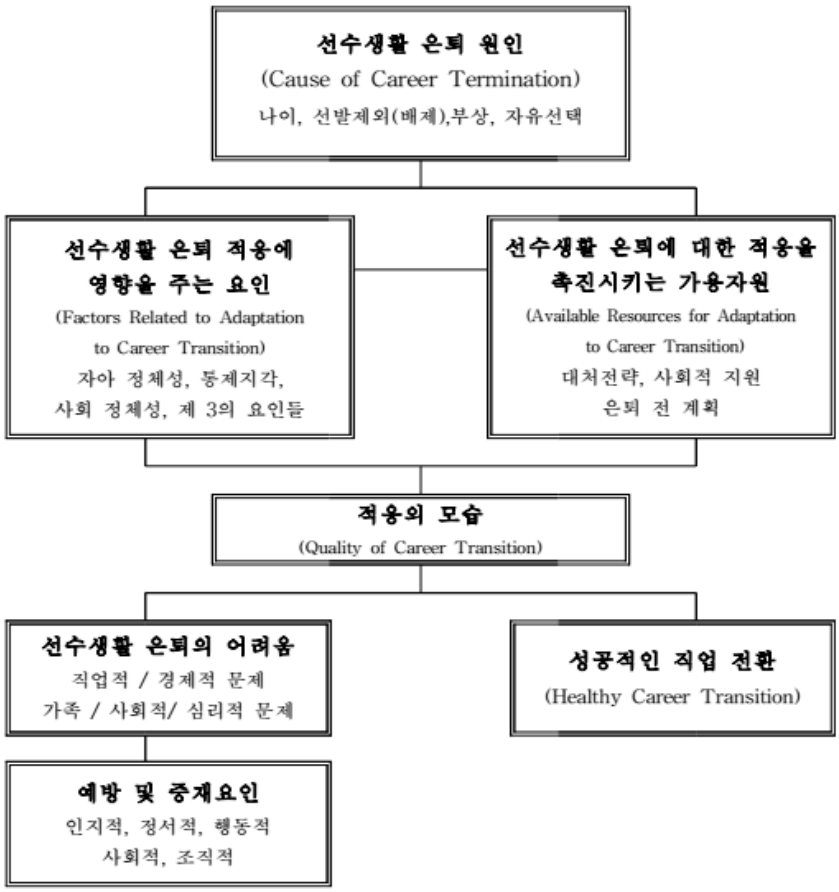
Hill과 Lowe(1974)는 Sussman(1971)의 분석 모델을 접목시켰으며, 다차원적 개념화로 개인(동기, 가치, 목표 등), 상황(은퇴 상황, 은퇴 전 계획, 은퇴 수입 등), 구조(사회 계급, 결혼 상태 등), 사회(가족, 친구, 사회적 지지 등), 경제적 제한요소(경제 주기, 고용주의 태도 등)와 같은 요인들이 은퇴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이 입장은 은퇴에 대한 선수의 지각, 은퇴 전후의 환경 특성, 은퇴에 대한 적응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양희연, 2016). 전환으로서의 은퇴를 고려하는 관점은 행동의 중단이라기보다는 연속성에 두어야하며, 목표와 흥미의 포기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로 보고, 적응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Greendorfer& Blinde,1990).

은퇴 연구들을 토대로 Taylor와 Ogilvie(1994)는 은퇴과정을 총망라한 선수생활 은퇴 개념 모형을 개발하여 은퇴 원인 요인, 선수 생활 은퇴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퇴과정을 촉진시키는 가용 자원, 은퇴에 대한 적응의 모습, 선수생활 은퇴 스트레스의 예방 및 중재 등 5단계를 종합적으로 개념화했다(정지혜, 2010). 선수들의 은퇴 모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선수생활 은퇴 개념 모형 (Taylor ~ Ogilvie, 199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단계. 선수 생활의 은퇴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수 생활 은퇴의 전형적인 일차적 원인으로 고려되는 연령은 심리적인 연령과 생리적 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리적 연령 측면은 선수들의 경쟁을 위한 요구 능력인 체력과 신체조성, 운동기술 등은 훈련을 통해 저하되는 속도를 지체될 수 있지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른 점진적인 쇠퇴는 불가피하게 지체시킬 수가 없다. 또, 노화에 의해 발생되는 심리적인 요인들은 선수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은퇴에 영향을 미친다.

(2) 현실적으로 선수들의 선발제외는 스포츠 세계에서 생존한 생존자에게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만, 선발이 되지 않은 선수들한테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3)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중단시키는 손상은 선수들에게 정체성 위기, 사회적 철회, 공포, 불안, 자존심 손실을 가져다준다(Taylor& Ogilvie,2001).

(4)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의지로 중단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스포츠와 관련된 이유로 은퇴를 선택한다.

(5) 앞에서 언급한 주요 요인 이외에도 가족적 이유, 코치 또는 스포츠 조직과의 문제, 재정적 문제 등이 선수 생활 은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Taylor & Ogilvie,2001).

2단계. 선수 생활 은퇴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 자기 정체성은 스포츠에 참가와 성취의 관점에서 자기-가치(self-worth)로 정의하며 선수 생활 은퇴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점이다(Blinde & Greendorfer,1985).

(2) 타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사회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수들일수록 높은 의심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은퇴 전 교육과 직업에 관한 은퇴 계획은 스포츠 밖의 서계에서 사회적 역할 발달을 도와주고 은퇴 이후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은퇴에 있어서 통제지각은 자발적이거나 강제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

(4) 기타원인으로는 잠재적 기여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스포츠에서 재정 의존성과 은퇴 이후 직업 취득의 가능성과 건강 및 결혼상태 등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단계. 기용자원으로 은퇴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은퇴 이후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 가능한 자원들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능력, 사회적 지지와 은퇴 전의 계획이 은퇴 후 사회에 적응 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4단계. 은퇴에 대해서 적응하는 모습이다. 스포츠에서 은퇴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5단계. 선수 생활의 은퇴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과 중재이다. 선수 생활 은퇴에 대해서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또는 교육/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수 생활의 은퇴 과정에서 경험하는 선수들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인지재구성 전략 및 정서 표현기법들과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한다.

6단계. Lally(2007)와 Douglas & Carless(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선수들의 은퇴 이유(자발적·비자발적 은퇴 등)와 선수들 개개인의 발달 정도(교육수준, 사회성 발달, 선수로서의 정체성 등)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및 물리적 자원과 대처방안(은퇴 지원 프로그램 참가, 은퇴 전 사전계획, 사회적지지 등)이 선수들 은퇴 이후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은퇴의 인식 및 준비 정도에 따라 자발적 은퇴 또는 비자발적 은퇴가 진행되고, 은퇴 이후 발달 정도와 대처방안 등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 정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스포츠에서 은퇴는'전환'의 의미로'탈퇴'와'이탈'의 관점이 아니라 선수들 개개인이 다른 직업으로 이동 또는 역할 전환을 위한 관점에서 은퇴 의미를 정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은퇴의 결정 요인

은퇴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로 결정하는 요인을 구분할 수 있다. 금메달리스트의 은퇴 연구에서 은퇴 원인으로 체력, 연령, 목표상실, 감독과 마찰, 가정상의 문제, 후배를 위해, 2차 직업으로의 전환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구창모·박경호, 2002).

자발적 은퇴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은퇴를 말하는데 이는 운동선수의 교육수준과 현재의 재정상태, 신체적 저하에 대한 인식,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은퇴 결정 요인들로 꼽았다(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대학교 교육을 받은 선수들은 다른 직업으로의 이동이 쉬우므로 일찍 자발적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McPherson,1978). 또한, 운동선수들이 겪는 체력 저하나 전문기술의 퇴보에 대한 인식이 은퇴를 결심하는 요인이 된다(Davis,1973). 직업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은퇴를 결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운동관련 직업과 비 운동 관련 직업으로의 이동으로 나눌 수 있고(Beckley,1975), 자발적 은퇴의 경험은 은퇴 후 사회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였다(Martinetal.,2013).

비자발적 은퇴는 운동선수들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 은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운동선수의 부진과 부상, 연령, 선발제외 등의 이유로 선수들은 스포츠에서 강제로 은퇴를 당한다고 하였다(홍승후,2005). 특히 Coakley (1983)에서는 은퇴된 선수 중 72% 이상이 부상으로 비자발적으로 은퇴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뽑았으며, 은퇴 이후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사회적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홍승후, 2005; Lotysz & Short, 2004).

이와 같이 은퇴 이후의 선수들의 삶의 적응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선수들의 은퇴 결정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도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스로 삶의 방식에 대한 선수들의 태도와 신념을 수정하는 것이다(Taylor& Ogilvie, 1994).

B. 진로선택

1. 진로선택

일생에 있어서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선택과 적응 과정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로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평생 만족하게 적응하며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김충기, 1996).

또한"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자기의 직업과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학벌보다 그 일을 수행하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만이 장차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최철수, 1992).

진로선택은 중요한 것이며 완전하게 선택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능력, 소질, 적성, 그리고 흥미에 알맞게 노력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로선택을 하여야 할지 다음을 알아보자.

(1) 자신의 객관적 이해 : 능력, 적성, 흥미, 가치관, 적성 등 여러 검사를 통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2) 직업 세계의 이해 : 직업의 종류와 유망직종을 분석, 직업정보탐색, 생계유지, 사회봉사를 하여 자아실현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3) 합리적인 진로계획을 수행 : 진로정보 활용에 우선.

① 학생 개인의 객관적 이해와 가정환경 이해

② 변천하는 직업시대이해

③ 학과특성 및 진로 방향에 대한 자료

④ 진학, 직업선택을 위해 학습자료 탐색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진로상담 : 진로선택에 있어 상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로 상담 교사, 담임교사, 학부모와 상담.

최철수(1992)는"진로선택은 대학 진학 또는 사회진출 어느 경우에 든 자기의 목표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의 일원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자아를 실현시킨다."고 하였다.

진로선택에 대한 개인의 자아 발달을 창조한 Tiedeman과 O'Hara(1968)의 견해에 의하면 직업발달이란'직업적 자아 주체성(vocational self-identification)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이며, 직업적 자아 주체성이란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이나 사고를 의미한다(박선미, 2010). 이것은 자아개념과 진로선택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진로선택의 요인

a. 개인적 요인

본 연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영희(1990)는 진로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격 도야를 위하거나 학문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는 스스로 작업을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고, 사회적 위신과 명예 등을 얻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불확실하게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이 45.7%, 안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장래에 대해 확인하는 입장이 49.0%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더 희망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류부현(1984)은 인문계 학생들의 계열 선택에 있어서 목적의 식 없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정환경이나 성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 학생들 대부분이 불안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박선애(1986)는 인문계 고등학생들 과반수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이유가 좋은 직업, 사회 풍조의 순으로 나타나 진학에 대한 관념이 직업 선택에 높은 비중을 두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고 하였다(김기복, 2013). 조재천(1991)은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겠다가 가장 높게, 그다음으로 성적을 고려해서로 나타났는데, 가정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적성과 흥미에, 가정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졸업 후 취업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김기복, 2013). 김승오(1976)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실력 부족에 따라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21.0%로 나타났으며, 강시영(1988)은 고교생들의 진로에 따른 고민거리는 학교 성적, 가치관 등이며 진로 결정 시기는 장래, 가정, 학교, 교우, 이성, 가치, 도덕 등의 영역과 관계있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이정근(1980)은 능력 요인으로 일반 지능 및 적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일반적성·직업적성 및 기계 적성이나 사무 적성 같은 특수 재능은 진로의 선택과 선택한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 게 직업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언하고 있다(김진석, 2006).

b.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과 진로선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정 환경면에서 이세구(1988)는 고등학교에 관련된 결정은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문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며 일찍 진로를 결정한다. 자녀에 대한교육 포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호성(1990)은 고등학교의 특색과 관련하여 고려한 결과 일반 계열은 대학 입시에, 공업계열은 고교 졸업 직후 바로 취업을, 과학계열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중점으로 크게 고려했다.

조재천(1991)은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초기와 대학교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시기로 나타났으며, 내신 성적별로 상위권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2학년 전에 자기 스스로 진로를 미리 결정하지만, 중·하위권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입학원서 작성할 때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한다고 나타났다. 박선애(1986)는 계열을 선택 할 때 본인이 계열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다음으로는 가족과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하영일(1991)의 연구에서도 계열을 선택하는 핵심주체는 본인이라고 연구한 바 있고 진로를 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하거나 선택할 때 의논을 하는 상대로는 선배나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선생님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며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상담을 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체능계열에 대한 사항은 전문상담교사 인력 부족과 자료 부족으로 더욱 힘든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양훈(1991)은 계열 선택 시 주체가 자신 스스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담임선생님의 조언과 권유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지도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백정화(1985)는 진로에 대한 의논 상대로 부모 또는 친척이 제일 많았고, 상담교사나 교사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3%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진구(1987)는 진로선택 시 적성검사 결과를 활용 및 참고 하겠다는 비율이 84.2%, 적성검사 시행하였지만 결과를 모른다가 10.8%로 적성검사 결과를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으며, 고교생들의 언론 기관에 관련된 정보가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c. 직업적 요인

진로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직업관이다. 정진구(1987)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며, 직업을 갖는 이유로는 자아실현과 소질의 개방이 47.4%이고, 생계유지가 34.5%이며 사회봉사는 7.7%로 나타났다. 매력적인 직장으로는 적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직장이 44.5%이며 전망이 좋은 장래 직업은 30.3%로 나타났다고 한다.

권효성(1990)은 장래 직업선택 시 직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62.8%, 안정적인 직업이 21.9%이며, 특히 상업계열은 안정적인 직업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계열은 나 자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형구(1984)는 자녀들의 진로선택에 대해서 부모는 대다수 사무 관련 직종을 희망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부모님의 조언을 종합하여 진로결정을 하나 학생들의 적성에 관련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현림(1974)은 부모님의 직업이 그 중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들의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화(1985)의 연구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과 적성을 중요선택기준으로 여기며,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현재 직업을 학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한 명예와 부를 얻는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한국과 대조적으로 부모님의 직업 즉 아버지의 직업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므로 세대 간의 직업 이전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은 직업보다 지명도가 낮은 직업에서 거의 비슷한 종류의 직업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직업으로 세대 간 계승되는 직업 이동률이 낮을수록 노동 이적률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자식들의 자긍심 부족과 낮은 소명 의식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전직 의사 표현 등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현재 직장인을 위한 재훈련 및 재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제고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2. 체육·스포츠와 연관된 직업 분류

체육과 연관된 직업선택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먼저 신체활동을 좋아하고 신체활동에 관심이 높아야 한다. 체육과 연관된 일을 운동과 접목시켜 간주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운동선수로서 자기완성을 하거나 체육과 연관된 직업군들에서는 높은 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이 신체활동을 다루는 종합적 학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김정하, 199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文)과와 무(武)과의 학습조화는 정신과 신체를 이해하고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간 완성을 위한 교육의 가장 적절한 학습법이며 교육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강신복(1981)은 미래체육 전문직 분류를 통해 다양한 체육 관련 직업들을 언급하고 한국교육개발원(1989)은 체육과 관련된 직종을 체력육성 전문가와 전문운동선수, 스포츠 및 체육 지도자 등으로 분류하였다.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체육과 관련된 직업들이 매우 다양하다. 체육과 연관된 직업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 체력육성전문가, 전문운동선수, 체육 및 스포츠지도자, 스포츠사업가, 스포츠과학자, 스포츠관리자, 스포츠매스컴종사자, 건강관리자

(2) 미래체육전문직(강신복,1981) : 성인체력(경찰, 소방서), 노인체력(양로원), 군인체력(각 군), 유아체력(유치원), 산업체력(회사), 심장력 강화와 치료(병원), 우주 체력(항공회사), intramuralSport관리(학교, 회사), 경기관리(프로팀, 대한체육회), 스포츠캠프(개인), 스포츠방송(라디오, TV), 스포츠관리(교회, 캠프), 상업 스포츠(개인), 스포츠 저널리즘(신문, 지사), 스포츠 교정(프로팀, 대한체육회), 스포츠 사진(TV, 신문), 스포츠예술(스포츠 잡지), 경기 재무(프로팀, 대학), 시설관리(프로팀), 스포츠 시설디자인(스포츠용구회사), 스포츠 용구 디자인(스포츠용구회사), 스포츠안전(스포츠용구회사), 스포츠 영양사(대한체육회, 프로팀), 경기 심판(대한체육회, 학교), 무용가(무용단), 경기트레이너(대학, 체육회), 물리요법(병원), 레크리에이션요법(병원), 무용요법(병원), 체중조절(헬스클럽), Seepclinic(병원), 작업분석(회사), 스포츠유니폼 디자이너(회사), 지체부자유자 체육프로그래머(병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진로만족

1. 진로만족의 개념

진로만족(Career Satisfaction)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만족을 뜻한다(Lounsbury et al., 2003). 또한, 직업적인 측면과 관련 있는 직업만족도와는 구분되며 좀 더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진로만족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자(Lounsbury et al., 2004), 진로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요소 (Gatticker & Larwood, 1989)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진로적응성과 진로 만족도

진로 발달상에서 가장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과 연관 있는 것으로 진로 적응성을 꼽을 수 있다. 진로적응성이 긍정적 정서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가 있었으며(Konstam, Celen-Demirtas, Tomek, & Sweeney, 2015), 진로 만족도를 예측 하는데 있어서, 성격 5 요인 및 핵심 자기-평가(Core self-evaluation)의 설명량을 제외하고도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진다는 연구 또한 있었다(Zacher, 2014). Fiori, Bollmann과 Rossier(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이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통해 직무 만족도 종단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였다(박기복, 2017). 또한, 진로적응이 높은 사람은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도 재취업의 질이나 지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진로적응이 개인의 정서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Klehe et al.,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와 선택에 대한 실질적이며 양적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은퇴 이후 선택한 진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대상, 조사 도구, 조사절차, 자료처리 등의 연구방법 등을 설정하였다.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양궁선수 중 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50명 정도의 모집단을 선정하고,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자기평가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케 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적합성을 판정한 결과, 문제점(이중 기입, 편향적 기입, 기입 누락 등)이 발견된 1부의 설문을 제외한 총 49부의 설문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에 한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는 15명(30.6%), 여자는 34명(69.4%)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1명(63.3%), 30대 17명(34.7%), 40대 1명(2.0%)으로 나타났다. 양궁 입문 시기는'초등학교'46명(93.9%),'중학교'2명(4.1%)으로 초등학교 시절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고등학교'1명(2.0%),'2년 대학'5명(10.2%),'4년 대학'32명(65.3%),'대학원'9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8.4%),‘대학원 이상’2명(4.1%)이다. 양궁선수로 활동한 기간은‘3년 이상 ~ 5년 미만’1명(2.0%),‘5년 이상 ~ 10년 미만’1명 (2.0%),‘10년 이상 ~ 15년 미만’15명(30.6%),‘15년 이상’이 32명(65.3%)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응답하였다. 실업팀에서 양궁선수로 근무한 기간은‘2년 이하’7명(14.3%), ‘3년 이상 ~ 4년 미만’ 9명(18.4%),‘4년 이상 ~ 5년 미만’2명(4.1%), ‘5년 이상’30명(61.2%)로 5년 이상 장기로 실업팀 선수로 근무한 선수들이 많았다. 연간 수입은‘2,500만 원 ~ 3,000만 원’3명(6.1%),‘3,000만 원 ~ 4,000만 원’19명(38.8%),‘4,000만 원 ~ 5,000만 원’21명(42.9%), ‘5,000만 원’6명(12.2%)이다. 양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선생님의 권유로’24명(49.0%)으로 가장 많았고,‘양궁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1명(2.0%),‘양궁이 좋아서’12명(24.5%),‘기타’12명(24.5%)이 응답하였다. 은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20세 이상 ~ 25세 미만’1명(2.0%),‘25세 이상 ~ 30세 미만’9명(18.4%),‘30세 이상 ~ 35세 미만’30명(61.2.%)로 가장 많으며,‘35세 이상 ~ 40세 미만’9명(18.4%)가 응답하였다. 은퇴 요인은‘경제적 이유’1명(2.0%),‘부상으로 인한 은퇴’11명(22.4%),‘성적부진’30명(61.2%), ‘체력의 한계’4명(8.2%), 기타는 3명(6.1%)이 응답하였고, 은퇴 이후 준비 행동은‘교육’10명(20.4),‘사업구상 또는 인맥구성 5명(10.2%),‘저축 또는 적금’25명(51%),‘준비하고 있지 않다’4명(8.2%), 기타 5명(10.2%)이고, 은퇴에 대한 상의는‘운동선배 또는 동료들’9명(18.4%),‘코치감독’3명(6.1%), 기타 4명(8.2%)이고‘본인 혼자’14명(8.2%),‘부모님 및 형제’와 상의 한다가 19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은퇴 후 희망하는 진로는‘체육교사’ 4명(8.2%),‘공무원’2명(4.1%),‘일반 회사원’4명(8.2%), 기타 9명(18.4%),‘개인 사업 및 자영업’10명(20.4%), ‘체육 또는 스포츠 관련업’20명(40.8%)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은퇴 후 체육 관련 희망분야는‘생활체육 지도자’3명(6.1%),‘운동부 감독 및 코치’ 14명(28.6%),‘체육관계 방송인’1명(2.0%),‘체육교사’8명(16.3%),‘체육 또는 스포츠 관련 사업’14명(28.6%),‘체육 전문 연구가(교수, 회사원)’3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1%),'체육행정가'5명(10.2%), 무응답 1명(2.0%)이며 은퇴이후 애로사항은 '직업전환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없다'19명(38.8%),'취업 정보 얻기 힘들다' 10명(20.4%),'일할 단체 부족'9명(18.4%),'양궁 분야 진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7명(14.3%), 기타 4명(8.2%)이 응답하였다.

< 표 2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15	30.6
	여자	34	69.4
연령	20대	31	63.3
	30대	17	34.7
	40대	1	2.0
양궁입문시기	초등학교	46	93.9
	중학교	2	4.1
	무응답	1	2.0
교육정도	고등학교	1	2.0
	2년 대학	5	10.2
	4년 대학	32	65.3
	대학원	9	18.4
	대학원이상	2	4.1
활동 기간	3년 ~ 5년	1	2.0
	5년 ~ 10년	1	2.0
	10년 ~ 15년	15	30.6
	15년 이상	32	65.3
실업팀근무기간	무응답	1	2.0
	2년 이하	7	14.3
	3년 이상 ~ 4년 미만	9	18.4
	4년 이상 ~ 5년 미만	2	4.1
	5년 이상	30	61.2
연간수입(연봉)	2,500만 원 ~ 3,000만 원	3	6.1
	3,000만 원 ~ 4,000만 원	19	38.8
	4,000만 원 ~ 5,000만 원	21	42.9
	5,000만원 이상	6	12.2
시작동기	선생님의 권유로	24	49.0
	양궁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1	2.0
	양궁이 좋아서	12	24.5
	기타	12	24.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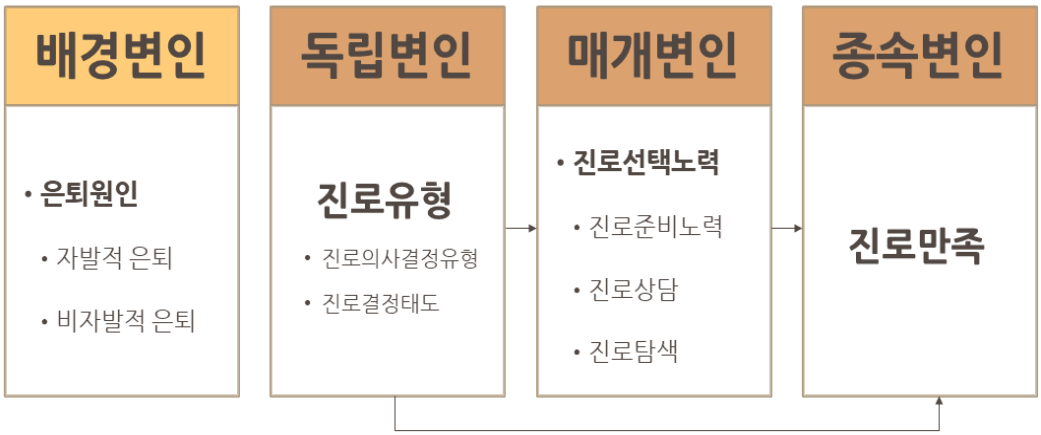
구 분		인원(명)	비율(%)
은퇴시기	20세 ~ 25세 미만	1	2.0
	25세 ~ 30세 미만	9	18.4
	30세 ~ 35세 미만	30	61.2
	35세 ~ 40세 미만	9	18.4
은퇴요인	경제적 이유	1	2.0
	부상으로 인해	11	22.4
	성적부진	30	61.2
	체력의 한계	4	8.2
	기타	3	6.1
은퇴 이후 준비행동	교육	10	20.4
	사업구상 또는 인맥구성	5	10.2
	저축 또는 적금	25	51.0
	준비하고 있지 않다	4	8.2
	기타	5	10.2
은퇴 상의	본인 혼자	14	8.2
	부모님 및 형제	19	38.8
	운동 선배 및 동료들	9	18.4
	코치감독	3	6.1
	기타	4	8.2
은퇴 후 희망진로	체육교사	4	8.2
	체육 또는 스포츠 관련업	20	40.8
	개인 사업 및 자영업	10	20.4
	공무원	2	4.1
	일반 회사원	4	8.2
	기타	9	18.4
은퇴 후 체육 관련 희망분야	생활체육 지도자	3	6.1
	운동부 감독 및 코치	14	28.6
	체육관계 방송인	1	2.0
	체육교사	8	16.3
	체육 또는 스포츠 관련 사업	14	28.6
	체육 전문 연구가(교수, 회사원)	3	6.1
	체육행정가	5	10.2
	무응답	1	2.0
은퇴이후 애로사항	직업전환 위한 재교육프로그램 없다.	19	38.8
	취업 정보 얻기 힘들다.	10	20.4
	일할 단체 부족	9	18.4
	양궁 분야 진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7	14.3
	기타	4	8.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연구모형

양궁선수들의 은퇴는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에 따라 원인이 나누어지며, 은퇴 후 진로 선택 유형에 따라 진로 선택과 진로 만족에 차이가 있고 진로 선택은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림 2>와 같이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 그림 2 > 연구 모형도

C.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선택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양궁선수 중 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한 후 자기평가기입방법으로 각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조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시 설문에 응답하는 은퇴선수들에게 사전에 이 연구의 목적이나 취지를 전달하고 자료수집 허락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구 절차는 다음 < 표 3 >과 같다.

< 표 3 > 연구절차

과정	연구내용	기간
준비	• 연구 주제 선정 및 목적 선정 • 문헌고찰 및 선행 연구 탐색	2017. 8 ~ 2017. 10
설계	• 연구목적과 연구 대상, 연구 문제 수립 •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 • 연구 도구 선정 • 연구 대상 섭외	2017. 10 ~ 2018. 1
수행	• 연구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 수집된 자료 분류 및 자료 입력	2018. 2.1 ~ 2018. 3.31
분석	• 통계 방법을 활용한 자료처리 및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및 결론 도출	2018. 4
정리	• 논문 작성 • 논문 수정 및 보완	2018. 5 ~ 2018. 6

D.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고, 설문지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선행 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은퇴 원인, 진로 유형, 진로선택, 진로 만족 변인들 모두'전혀 그렇지 않다 1점','그렇지 않다 2점','보통이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8문항, 은퇴와 관련된 질문 9문항, 진로선택 노력 10문항, 진로 의사 결정 유형 11문항, 진로 결정 태도 8문항, 진로 준비 행동 16문항, 진로 만족 20문항으로 총 82문항이고, 설문대상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양궁선수 중 실업팀 선수 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다.

먼저 진로유형에 대한 내용은 고향자(1992), 류명희(2004), 안광자(2004), 전경애(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문항은 합리성 유형 4문항, 직관성 유형 3문항, 의존성 유형 3문항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문항들은 Osipw (1986)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번역하여 김봉환(1997), 김남진(2003), 박도진(2004)이 사용한 설문을 기초로 수정 및 보완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내용은 김봉환(1997)이 연구하고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진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심은숙(2003)의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만족도 검사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설문은 5단계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먼저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은 17개 문항, 진로유형에 관한 문항은 19개 문항, 진로선택노력에 관한 문항은 10개 문항, 진로만족에 관한 문항은 20개 문항 총6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와 내용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4 > 설문지 구성

분류 / 변인	구성 지표	구성 내용	총합
독립변인	진로유형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태도	19
매개변인	진로선택노력	진로준비노력, 진로상담, 진로탐색	10
종속변인	진로만족	진로선택에 대한 만족	20
배경변인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양궁입문시기, 교육정도, 활동기간, 실업팀근무기간, 연간수입(연봉), 시작동기, 은퇴시기, 은퇴요인, 은퇴이후 준비행동, 은퇴 상의, 은퇴 후 희망진로, 은퇴 후 체육관련 희망 분야, 은퇴이후 애로사항	17
		계	66

2.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기본으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설문 문항 내용의 적합성과 설문 문항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다. 우선 예비조사에 앞서 타당도 검증과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설문지의 관련 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이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문가 3명과 전공 교수를 중심으로 회의를 통해 설문지 문항들은 검토하였다.

내용타당성의 검증 후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 알맞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지의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법을 이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직교회전을 통해 각 요인별로 요인적재치 0.4 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 타당도

< 표 5 >, < 표 6 >에 의하면 진로유형은 고유치가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직교회전(varimax)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진로유형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태도 요인으로 구분하고 진로결정태도의 하위요인 문항 중 진로결정태도01 문항, 진로결정태도05 문항, 진로결정태도06 문항 총 3문항이 기각되었다. 그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 요인의 누적된 충분산 값은 67.463로 67.463%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3개로 수렴되었고, 진로결정태도 요인은 누적된 총분산 값은 75.404로 75.404%로 설명력이 있으며 하위요인은 2개로 수렴되었다.

KMO(Kaiser-Meyer-Olkin)의 표준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ency)는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지수로 0.5~1 사이의 값은 요인분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0.5 이하의 경우는 요인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Bartlett-검정은 귀무가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sig(p)가 0.05 이하인 경우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김계수, 2008).

본 연구에서의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표본적합도 KMO를 살펴보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KMO=.658, 진로결정태도의 KMO=.653으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진로의사결정태도 χ^2=203.849(df=55, p=.000), 진로결정태도 χ^2=66.776(df=10, p=.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5 > 진로유형 하위요인 진로의사결정유형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의존성	문항11	.886		
	문항09	.794		
	문항08	.792		
	문항10	.761		
합리성	문항05		.843	
	문항01		.831	
	문항03		.800	
	문항02		.566	
직관성	문항07			.876
	문항06			.830
	문항04			.723
고유값		2.846	2.412	2.162
분산(%)		25.845	21.932	19.656
누적(%)		25.875	47.807	67.463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성 측정=.658
χ^2=203.849, df=55, sig=.000

< 표 6 > 진로유형 하위요인 진로결정태도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진로성숙도	문항04	.871	
	문항02	.840	
	문항03	.818	
진로결정수준	문항07		.893
	문항08		.869
고유값		2.148	1.622
분산(%)		42.969	32.435
누적(%)		42.969	75.404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성 측정=.653
χ^2=66.776, df=10, sig=.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7 >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은 고유치가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직교회전(varimax)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누적된 충 분산 값은 58.532로 58.532%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표본적합도인 KMO=.774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χ^2=354.971(df=45, p=.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 진로준비행동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진로준비행동	문항12	.860
	문항05	.826
	문항13	.812
	문항15	.808
	문항04	.776
	문항07	.733
	문항14	.719
	문항06	.717
	문항08	.690
	문항16	.687
고유값		5.853
분산(%)		58.532
누적(%)		58.532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성 측정=.774
χ^2=354.971 df=45, sig=.000

< 표 8 >에 의하면 진로선택노력은 고유치가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직교회전(varimax)을 통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다. 그 결과 누적된 충 분산 값은 72.221로 72.221%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3개로 수렴되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의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표본적합도인 KMO=.655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χ^2=203.999(df=45, p=.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 > 진로선택노력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진로탐색	문항09	.856		
	문항07	.840		
	문항06	.799		
	문항08	.639		
진로상담	문항05		.883	
	문항04		.809	
	문항10		.805	
진로준비노력	문항01			.813
	문항02			.662
	문항03			.661
고유값		2.880	2.485	1.857
분산(%)		28.800	24.846	18.575
누적(%)		28.800	53.646	72.221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성 측정=.655
χ^2=203.999, df=45, sig=.000

< 표 9 >에 의하면 진로만족은 고유치가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직교회전(varimax)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진로만족 요인 문항 중 진로만족 06문항, 진로만족 07문항, 진로만족 08문항, 진로만족 14문항, 진로만족 20문항 총 5문항이 기각되었다. 그 결과 누적된 충 분산 값은 62.413로 62.413%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표본적합도인 KMO=.868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χ^2=653.481(df=105, p=.000)로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9 > 진로만족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진로만족	문항19	.870
	문항03	.867
	문항18	.858
	문항17	.857
	문항16	.846
	문항02	.833
	문항01	.821
	문항12	.805
	문항04	.756
	문항15	.734
	문항11	.729
	문항10	.725
	문항09	.721
	문항13	.721
	문항05	.667
고유값		9.362
분산(%)		62.413
누적(%)		62.413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합성 측정=.868
χ^2=654.481 df=105, sig=.0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는 내적일관성기법(internal consistency method)을 이용하였다.

< 표 10 > 신뢰도 계수

요인			문항수	신뢰도
진로유형	진로의사결정	합리성	4문항	.732
		직관성	4문항	.759
		의존성	3문항	.829
	진로결정태도	진로성숙도	3문항	.800
		진로결정수준	2문항	.726
진로선택노력		진로탐색	4문항	.804
		진로상담	3문항	.811
		진로준비노력	3문항	.619
진로준비행동			10문항	.920
진로만족			15문항	.955

설문지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표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의 합리성은 .732, 직관성은 .759, 의존성은 .829로 나타나며,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태도에서 진로성숙도는 .800, 진로결정수준은 .726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노력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에서는 .804, 진로상담은 .811, 진로준비노력은 .619로, 진로준비행동은 .920, 진로만족은 .955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성의 일반적 채택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이 연구에 사용 측정 도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 자료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내용 또는 연구 목적에 부적절한 자료,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들을 제외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 통계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측정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정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여 측정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과의 영향 관계,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만족과의 관계, 진로선택노력과 진로만족과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실업팀 양궁선수들로 한정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전체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 및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 및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2장은 선행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은퇴의 개념과 스포츠에서의 은퇴 개념 및 진로변화에 대한 은퇴개념과 은퇴 결정 요인 및 은퇴 유형들을 알아보고 진로선택요인과 과 진로만족의 개념 및 진로적응성과 진로만족도 개념과 구성요소 등을 제시하였고,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및 진로만족 등의 연구변수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3장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잠재된 변수들 간의 원인결과 관계를 밝히고자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표본설계와 연구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장은 실증분석 결과로 기술통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정결과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시하였고, 가설검정을 통해 변수 간에 있어서 영향요인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5장은 결론과 제언 부분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실업팀 소속 양궁선수들을 대상으로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에 관한 연구로 은퇴 후 진로선택을 위해 진로준비행동, 진로유형, 진로선택노력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첫째,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에 미치는 영향, 둘째, 진로유형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셋째, 진로선택노력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은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별 척도에 대해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선택요인에서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성, 진로결정수준, 진로만족, 진로준비행동, 진로상담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상담은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성,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성, 진로선택노력,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의존성, 진로만족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선택노력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성,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진로의사결정의 직관성,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수준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합리성에서는 진로만족,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성, 진로결정수준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이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의존성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성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직관성에서는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진로성숙도에서는 진로만족, 진로준비행동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진로결정수준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진로만족 순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진로준비행동에서는 진로만족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 표 11 > 진로선택노력, 진로유형,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 상관분석 결과

			진로 선택	진로 상담	진로 선택 노력	합리성	의존성	직관성	진로 성숙도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준비 행동	진로 만족
진로선택 노력		진로선택	1									
		진로상담	.012	1								
		진로선택노력	−.112	.280	1							
진로 유형	진로 의사 결정 유형	합리성	.272	.375**	.361*	1						
		의존성	−.019	.115	−.151	−.050	1					
		직관성	−.131	.351*	.133	.120	.033	1				
	진로 결정 태도	진로성숙도	−.020	−.006	.066	.285*	−.281	.276	1			
		진로결정수준	.143	−.286*	.004	.069	.228	−.138	−.154	1		
진로준비행동			.082	.518**	.320*	.260	−.016	.151	.233	−.003	1	
진로만족			.121	.105	.219	.427**	−.206	.117	.411**	−.099	.244	1
평균			3.8367	2.0000	4.0680	3.7602	2.4745	3.3197	4.0544	3.8061	2.5511	3.6319
표준편차			.83783	1.02965	.71356	.69776	.93436	.93531	.80031	1.01456	.94083	.7711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진로 유형이 진로선택노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진로 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로“진로 유형이 진로선택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성 하위변인 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고, 진로선택노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의 진로 탐색에 미치는 영향

< 표 12 >는 진로 유형과 진로 선택 노력의 하위요인 중 진로 탐색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393(p=.678)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17로 약 1.7%(수정계수에 의하면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좋은 모형이라고는 보긴 힘들다. 진로유형의 하위요인과 진로선택노력의 진로 탐색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t=.061, p=.952)과 진로결정태도(t=.851, p=.399)는 진로선택노력의 진로 탐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노력 의 진로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β=.020), 진로결정태도(β=.180)를 살펴보면 유의한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태도인 진로의 유형이 진로 선택을 할 때 투자해야할 노력 중 진로 탐색을 하는 것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궁선수들의 은퇴 이후 진로를 선택할 때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 방식과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해 결정태도가 진로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희망 진로를 탐색을 하는 것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므로 향 후 선수들의 진로 선택 시 희망 진로 탐색을 할 때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방식과 태도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12 >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탐색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3.064	.988		3.101	.003
진로의사결정유형	.012	.204	.009	.061	.952
진로결정태도	.180	.212	.129	.851	.399
R^2=.017 F=.393					

2.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상담에 미치는 영향

< 표 13 >는 진로 유형과 진로 선택 노력의 하위요인 중 진로상담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12.716(p=.000)으로 적합한 회귀 모형이며, 회귀식에 대한 R2=.361로 약 36.1%(수정계수에 의하면 33.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유형의 하위요인과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상담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t=4.589, p<.001)과 진로결정태도(t=−3.013, p<.01)는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상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 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태도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비교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β=.942)과 진로결정태도(β=−.640)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태도보다 진로상담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태도와 진로결정태도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 노력 시 진로상담 효과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수들이 은퇴 후의 진로결정시 진로유형에 대해 잘 준비를 하면 많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진로상담에 투자해야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입장에서 그리고 선수들을 위해서 진로결정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필요한 다양한 진로 유형들의 방법을 제안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불필요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표 13 >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상담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1.197	.992		1.207	.234
진로의사결정유형	.942	.205	.559	4.589	.000***
진로결정태도	−.640	.212	−.367	−3.013	.004*
R^2=.361 F=12.716***					

***p<.001, * p<.01

3.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에 미치는 영향

< 표 14 >는 진로 유형과 진로 선택 노력의 하위요인 중 진로준비노력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2.152(p=.128)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87로 약 8.7%(수정계수에 의하면 4.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 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유형의 하위요인과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t=2.024, p<.05)은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태도(t=.015, p=.988)는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 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살펴본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β=.295)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준비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정유형이 다양할수록 진로준비노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로결정태도는 진로준비에 대한 노력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14 >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준비노력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2.840	.815		3.483	.001
진로의사결정유형	.341	.169	.295	2.024	.049**
진로결정태도	.003	.175	.002	.015	.988
R^2=.087 F=2.152					

** p<.05

C. 진로 유형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표 15 >는 진로 유형과 진로 만족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3.162(p=.052)이며, 회귀식에 대한 R^2=.126로 약 12.6%(수정계수에 의하면 8.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유형의 하위요인과 진로선택노력의 진로준비노력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t=2.204, p<.05)은 진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태도(t=.878, p=.385)는 진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만족에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 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살펴본 결과 진로의사결정유형(β=.314)로 나타났으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다양할수록 진로만족도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로결정태도는 진로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15 > 진로유형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1.500	.928		1.616	.113
진로의사결정유형	.412	.187	.314	2.204	.033**
진로결정태도	.164	.187	.125	.878	.385
R^2=.126 F=3.162					

** p<.05

D. 진로준비행동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표 16 >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 만족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2.795(p=.102)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60로 약 6.0%(수정계수에 의하면 3.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준비행동(t=1.672, p=.102)은 진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만족에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β=.244)로 나타났지만 진로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따라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선수들의 진로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은퇴 후 선택하는 진로에 대한 만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16 >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3.099	.328		9.442	.000
진로준비행동	.200	.120	.244	1.672	.102
R^2=.060 F=2.795					

E. 진로선택노력이 진로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표 17 >는 진로선택노력과 진로 만족과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회귀모형은 F=1.118(p=.352)이며, 회귀식에 대한 R^2=.071로 약 7.1%(수정계수에 의하면 0.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모형은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선택노력의 하위요인과 진로 만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t=.990, p=.328), 진로상담(t=.286, p=.776), 진로준비노력(t=1.470, p=.148)은 진로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만족에 미치는 하위요인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로선택노력의 하위요인인 진로탐색, 진로상담, 진로준비노력과의 표준화 회귀계수 β값을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β=.145), 진로상담(β=.043), 진로준비노력(β=.223)으로 나타났지만 진로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선택 시 필요한 노력인 진로탐색활동, 진로상담활동, 진로준비노력이 진로만족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노력 즉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위한 상담과 진로준비에 필요한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진로만족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17 > 진로선택노력과 진로만족과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변수		B	SE B	Beta	t	유의확률
(Constant)		2.076	.873		2.378	.022
진로선택	진로탐색	.132	.133	.145	.990	.328
	진로상담	.032	.113	.043	.286	.776
	진로준비노력	.241	.164	.223	1.470	.148
R^2=.071 F=1.1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 연구는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에 관한 영향을 알아보고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선택에 유용한 시스템 구축 및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며 현재 은퇴선수들에게 필요한 은퇴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 및 개발 목적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은퇴의 나이보다 아주 이른 나이에 진행되는 운동선수들의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선수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은퇴이후의 진로에 대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 대상은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은퇴한 양궁선수 중 실업팀 선수 5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독립 t-검정,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은퇴한 실업팀 양궁선수들의 주 연령층은 20~30대로 양궁에 입문한 시기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양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선수시절 연봉은 평균 4,000만 원 정도의 고수입을 유지하며 30세 ~35세 사이 은퇴를 결정하고 은퇴의 요인으로는 성적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은퇴를 결정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은퇴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부모님 또는 형제들과 상의하거나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면 은퇴 이후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저축 또는 적금을 통해 진로에 대한 막연한 준비를 하거나 여러 관심분야나 체육 또는 양궁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진로를 준비한다. 은퇴 이후 희망하는 직업군은 체육 또는 스포츠 관련업종에서 일을 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힘들며 은퇴를 준비하면서 또는 은퇴 이후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직업전환에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전문 은퇴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부족하며 은퇴한 양궁선수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직에서 양궁선수로 활동하던 선수들 또한 양궁과 관련된 직업으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

둘째,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에 관한 유형이 진로선택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 이후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태도와 진로결정태도가 진로 선택 노력의 하위요인인 진로 탐색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상담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 이후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태도와 진로결정태도가 진로 선택 노력의 하위요인인 진로상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유형이 진로선택노력 하위요인인 진로준비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 이후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태도는 진로준비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결정태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에 관한 유형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유형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 이후 진로유형의 하위요인인 진로의사결정태도는 진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로결정태도는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만족에 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은퇴선수들이 은퇴 후 직업전환에 필요한 진로에 대한 준비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이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은퇴한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진로선택노력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선택노력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 이후 진로선택노력인 진로탐색활동, 진로상담활동, 진로준비에 대한 노력들이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제 언

본 연구는 은퇴한 실업팀 양궁선수들의 진로선택과 진로만족에 관한 연구르 통해 진로유형과 진로선택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학문적·실용적 측면에서 많은 효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궁선수들의 은퇴에 대한 대비로 직업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은퇴대비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은퇴에 관련된 정보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찰에 관해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대상이 특정 종목인 양궁으로 국한하여 양궁선수들만을 한정하였으며 이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을 확대하고 다른 스포츠 은퇴선수들로 확대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퇴한 선수들의 은퇴기간이 특정기간으로 한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특정기간이 아닌 전반적으로 은퇴한 선수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은퇴 선수들의 은퇴대비프로그램 및 은퇴 전 은퇴에 대한 인지와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전환에 필요한 교육 및 정책 마련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은퇴 선수들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정부에서 안정적인 직업과 진로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진로준비에 필요한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며 운동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전문상담교사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이 은퇴이후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주종목과 관련이 없는 타 직종으로 직업을 전환하고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부족하고 인력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수들의 은퇴이후 후배 및 제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나 감독, 코치와 같은 전문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정책마련과 은퇴 대비 프로그램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선수들의 심층면담도 필요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남원·노재귀. “여성 태권도선수의 은퇴 원인과 은퇴준비 및 진로장벽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1(1)*:137-152, 2013.

강은나. “은퇴 전후 생활만족도의 다중 변화궤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잠재집단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85-112, 2013.

구민정. “여자배구선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구창모, 박경호. “한국 금메달리스트의 은퇴 및 진로연구.”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15(1)*:71-84, 2002.

권성훈. “엘리트스포츠 은퇴선수의 진로에 대한 사회적 책무.”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7.

김기복. “태권도 우수선수의 진로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13.

김기중.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의 진로탐색 행동에 관한 인과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2017.

김병주. “운동선수 은퇴 전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4.

김양례. “여자은퇴선수들의 취업 관련 실태 및 취업 지원 방안.”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2)*:49-69, 2014.

김옥천. “운동선수의 프로지위 성취 가능성과 은퇴에 관한 문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9.

김옥천·임수원. “운동선수의 프로 지위성취 가능성과 은퇴에 관한 문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141-160, 1999.

김원식. “프로축구 2군 선수의 은퇴 후 사회적응과정과 재사회화.”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지태·김원식. “프로축구 2군 선수의 은퇴 후 사회 적응과 지원요인.”『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105-121, 2014.

김진석. “대학 태권도 전공자들의 졸업후 희망 진로 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6.

구민정. “여자배구선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남승구·장덕선·윤재량. “은퇴선수 사회진출 지원 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0(2)*:71-87, 2012.

명왕성. “K-리그 선수들의 은퇴에 대한 준비 행동 탐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박광호. “중도은퇴 야구선수들의 진로전환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박기복. “진로적응성과 진로만족도 및 관여도의 관계에서 타협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박두제. “국가대표 출신 아이스하키 은퇴선수들의 은퇴, 직업전환, 그리고 회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박선미. “여성 태권도 선수들의 진로방향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10.

박수근. “스키선수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적응 메커니즘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1.

박용환. “실업팀 태권도 선수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서연희. “운동선수의 은퇴기대, 심리적 위기감, 은퇴준비수준 및 재사회화간의 구조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4)*:393-406, 2012.

서진교.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송민. “태권도학과 대학생들의 진로의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충식, 공창빈, 최영섭. “한국 실업 스포츠 선수의 은퇴에 관한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6(4)*:1051-1060, 2005.

양지훈. “대학체육 특기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0.

양희연. “여자농구선수들의 은퇴와 직업전환.”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유덕수. “여자 육상선수의 조기 은퇴 이유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8(3):3-8, 2007.

윤성희. “은퇴한 여성 태권도 선수의 진로장벽.”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2011.

윤태희. “에어로빅체조 국가대표선수들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

이근복. “은퇴한 기계 체조 선수의 사회적응과정.”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이석배. “유도선수의 은퇴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이석배·조미혜. “유도선수의 은퇴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논문집』 *24*:89-105, 2012.

이숙경. “실업태권도선수의 은퇴환경과 은퇴 후 직업전환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2009.

이용식.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진로지원방안.” 『체육과학연구』 *19(4)*:136-145, 2008.

임영숙. “전문무용수의 은퇴 후 직업전환을 위한 지원모델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정지혜. “국가대표 여자 농구선수들의 은퇴에 대한 지각 탐색.” 『체육과학연구』 *21(1)*:1051-1062, 2010.

정철규. “유도선수의 은퇴와 은퇴 후 진로 결정.”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휘선. “경륜선수들의 은퇴기대 및 은퇴준비가 재사회화에 미치는 요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2.

조설비. “골프장의 물리적 환경이 고객의 내적 반응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차종호. “실업펜싱선수들의 은퇴 환경과 은퇴 후 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최문정. “은퇴선수 경력개발 및 진로전환 사업에 대한 비판적 탐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최예형. “KLPGA 투어선수들의 은퇴와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15.

최재섭. “한 은퇴 운동선수의 경력전환에 따른 정체성 변화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7(1)*:63-102, 2014.

한상덕. “프로축구 선수들의 은퇴 태도 및 은퇴준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8(4)*:172-184, 1999.

배성민. “프로야구선수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1998.

허철심. “프로스포츠 선수생활 은퇴 후 진로선택에 대한 탐색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홍승후. “운동선수의 은퇴에 관한 일 고찰.” 『고려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7*:81-92, 1995.

홍승후. “프로선수의 은퇴 태도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체육학회지』 16:709-726, 2001.

홍승후. “스포츠에서의 은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101-110, 2005.

홍승후. “프로선수의 은퇴준비와 선수 개인의 속성, 운동경력요인 그리고 은퇴요인과 상관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2)*:943-951,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tchley, R, C.. 『The Sociology of Retirement. Cambridge』 MA: Schenkman, 1979.

Barfield, R. E., & Morgan, J.N.. "Trends in satisfaction with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8***:19-23, 1976.

Burtless, G., & Robert E. L.. "Growth with Equity."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47(4)***:722-725, 1994.

Coakley, J.J.. "Leaving competitive sport : Retirementor Rebirth." *Quest* ***35***:1-11, 1983.

Cumming, E., & Henry, W, E..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 t』 Basic Books, 1961.

Durso, J.. 『The all-American dollar: The big business of sports』 Boston: Houghton Muffin Co, 1971.

Blinde, E.M., & Greendorfer, S. L..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process of leaving the role competitive athlete."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20***:87-94, 1985.

Greendorfer, S.L. & Blinde, E.M.. 『Structural differences and contrasting organizational models: The female intercollegiate sport experience』 In L.Vander Velden & J, 1990.

Gunderson, M., & Riddell, W.C.. "Jobs, Labor Standards and Promoting Competitive Advantage: Canada's Policy Challenge." *World Congress - 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10***, 1995.

Kimmel, D. C,. 『Adulthood and Aging An interdisciplinary Development View』 New York, John Wilyandsons. INC, 1974.

Havighurst, R, J., & Albrecht, R.. 『Older People. New York: Longmans』 Green, 1953.

Humphrey(Ed). "Psychology and Sociology of Sport: Current Selected Research." *New York: ANSPress* ***2***:151-16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ill, P, &Lowe, B.. "The inevitable metathesis of the retiring athlete."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34(9)***:5-29, 1974.

Mihovilovic, M. A.. 『The Status of Former Sportsmen』 *International Review and Row* 1968.

Ogilvie, B.. "Counseling for sports career termination." *In J. May & Asken(Eds). Sport Psychology: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Athlete* ***21***:34-45, 1987.

Stambulova, N. B.. 『Sport career termination of Russian athletes: Readiness to the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Worl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Skiathos, Hellas, Greece, 2001.

Sussman, M.B.. "An analytical model for the sociological study of retirement." *In F.M. Carp(Ed). Retirement. New York : Behavioral Publications* 29-73, 1971.

Taylor, J., & Ogilvie, B. C.. "A conceptual model of adaptation to retirement among athlete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6***:1-20, 199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설 문 지

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양궁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선택과 진로 만족에 관한 연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귀하의 생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읽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이 특 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는 양궁 입문을 언제 시작하였습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고등학교 졸업 이후

4.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 고등학교 ② 2년 대학 ③ 4년대학 ④ 대학원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가 지금까지 양궁선수로서 활동한 기간은?
① 1년~3년 ② 3년~5년 ③ 5년~10년 ④ 10년~15년 ⑤ 15년 이상

6. 귀하의 현재 실업팀에서 근무 년한은?
① 2년 이하 ② 3년 이상 - 4년 미만
③ 4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7. 귀하의 현재 실업팀 양궁선수로서 수입(1년 연봉 기준)는?
① 2,500만원 미만 ② 2,500만원 ~ 3,000만원 ③ 3,000만원 ~ 4,000만원
④ 4,000만원 ~ 5,000만원 ⑤ 5,000만원 이상

8. 귀하는 현재 양궁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양궁이 좋아서 ② 양궁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③ 선생님의 권유로 ④ 기타( )

9. 귀하가 생각하는 양궁선수의 은퇴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세~25세 미만 ② 25세~30세 미만 ③ 30세~35세 미만
④ 35세~40세 미만 ⑤ 40세 이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 귀하는 보편적으로 양궁선수가 은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부상으로 인해 ② 성적부진 ③ 경제적 이유 ④ 체력의 한계
⑤기타( )

11. 귀하가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 저축 또는 적금 ② 교육 ③ 사업구상 또는 인맥 구성
④ 준비하고 있지 않다. ⑤ 기타( )

12. 귀하는 은퇴 결정 시 은퇴에 대한 준비를 누구와 상의하시겠습니까?

① 부모님 및 형제 ② 운동 선배나 동료들 ③ 코치감독
④ 본인 혼자 ⑤ 기타( )

13. 귀하는 은퇴 이후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입니까?

①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업
② 일반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체육교사
⑤ 체육관련 교수
⑥ 개인 사업 및 자영업
⑦ ( )

14. 귀하가 체육 관련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느 분야입니까?

① 체육행정가
② 체육관계 방송인
③ 체육전문 연구가(교수, 연구원)
④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
⑤ 체육교사
⑥ 생활체육 지도자
⑦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 산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5. 귀하가 은퇴 이후 직업 전환하고 싶은 직종은 무엇입니까?
1, 2, 3순위로 기입하시오.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하시오.>>

1) 경기지도자 2) 팀 트레이너 3) 스포츠상담심리사 4) 심판 5) 팀코치 6) 홍보/마케팅 7) 용품판매 8) 컨설팅사업 9) 캐릭터사업 10) 외교활동 11) 용품제조 12) 시범기획 13) 무대관리 14) 어린이교실운영 15) 지자체생활체육지도자 16) 시설지도자 17) 유아체육교육 18) 초등체육교육 19) 중·고 체육교육 20) 대학체육교육 21) 양궁장/양궁동호회 운영 22) 개인 교습 23) 잡지/출판사 24) 양궁협회 관련 사무 25) 운동처방사 26) 기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6. 귀하가 은퇴 이후의 위와 같은 직종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와 관련된 일을 좋아해서
② 이 분야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③ 다른 직종에 비해 보수가 좋아서
④ 이 분야가 향후 미래성이 유망한 직업이라 판단되어서
⑤ 기타( )

17. 양궁 분야 중 은퇴 이후 양궁 관련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일하려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애로사항은)은 무엇일까요?
① 직업전환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없다.
② 일할 단체의 부족.
③ 취업 정보를 얻기 힘들다.
④ 양궁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⑤ 기타(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다음은 **진로선택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은퇴 이후 직업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양궁선수 활동 기간 중 은퇴 후 진로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양궁 관련 직업 외 다른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상담이나 워크샵, 특강 등에 참가하여 관심 있는 직업전환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은퇴 후를 위한 전환 교육을 받고 있다(직업전환 재교육 or 지도자 양성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은퇴 이후에도 계속 양궁 관련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양궁 관련 직업 양성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받겠다.	①	②	③	④	⑤
8	양궁선수의 은퇴 후 소속 팀이나 대한체육회, 대한양궁협회 등의 정책기관에서 진로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소속팀이나 대한체육회, 대한양궁협회 등의 정책기관에서 양궁 관련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적극 활동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소속팀에 은퇴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다음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느끼고 계신 생각을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지로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떤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가지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진로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것이다’라는 느낌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중요한 진로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진로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다음은 **진로결정태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취미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어떤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끔 상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업을 선택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검사라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다음은 **진로준비행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은퇴 후의 진로(취업) 등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은퇴 후의 진로(취업) 등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감독님 또는 코치와 나의 적성 및 은퇴 후 진로(취업) 등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로 있는 직업이나 진로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았거나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 프로그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항목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진로지도연구소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서 준비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은퇴 후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은퇴 후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진로)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깊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다음은 **진로 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는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은퇴 후 선택한 직업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주변의 관련된 지식을 얻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한다.	①	②	③	④	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항목	설 문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을 할 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는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활동으로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은퇴 후 선택한 진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되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은퇴 후 선택한 진로를 다시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ollection @ chosun